

“5·18 광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된 시나리오”

주한미군 정보요원 활동 김용장씨 광주서 추가 증언

내란사건 엮고 역사적으로 항거한 조건에 광주 타깃
5월 당시 광주상황 정보 美정부로부터 단서 찾아야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일어난 참혹한 비극의 시작은 '전두환의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는 1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찾아 자신이 목격한 1980년 5월 광주를 증언했다.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광주를 방문한 김씨는 이날 증언대회를 통해 “광주항쟁은 신군부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의해 일어났다”며 “광주는 역사적으로 항상 항거하는 도시고 그 규모도 마치 좋아 많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구와 부산은 자기네 고향이자 손대기에 규모가 커서 배제했고 대전은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목포는 규모가 작고 남쪽에 치우친 위치가 작전상 어려웠고, 전주 역시 ‘전라도’라는 지명 외에는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폭동할 수 있는 조건

을 갖춘 지역을 찾던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광주항쟁에 엮기 위해 이미 조작해냈고, 내란사건으로 엮었다”며 “자기네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고, 사복을 입은 편의대가 광주시민들을 선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무기를 스스로 반납 소각했고, 열흘간 이어진 항쟁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절도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광주시민의 정신이고 애국하는 정신”이라며 “만일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신군부의 빌미가 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민의 정신을 높이 사야 하는데 불구하고 39년 동안 광주항쟁에 대한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광주라는 말만 나오면 어떤지 모르겠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진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 1980년 광주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던 미국 정부로부터 단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두 전직 정보요원이 39년 만에 밝히는 5·18의 진실' 증언회에 참석한 김용장 전 미 육군 501정보단 요원과 허정환 전 505보안대 요원이 오월 어머니 회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돼왔던 '신군부 5·18 기획설'을 미국에서 보관중인 문건을 통해 실

존한 사실이라고 밝히기 위해서다. 그는 “열을 항쟁 기간에 제가 쓴 보고서는 40건 가운데 5건은 백악관으로 들어

갔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중 3건을 직접 읽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써 보낸 보고서를 미국 정부가 원형 그대로

우리 정부에 보내주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하기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5·18 당시 505보안부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가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허정환씨도 기자회견에 동행해 '5·18 기획설'에 힘을 보탰다.

허씨는 “보안사령부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그걸 감추고자 511 분석대책반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며 “나중에는 보안대원만으로는 부족해 법조인, 각 부처 연구위원까지 차출해 광주 문제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기록의 역사는 언제든 변조될 수 있는데 광주 문제가 그런 식으로 39년이 흘렀다”며 “필연적으로 광주를 타깃 삼아 5·18을 엮었다”고 말했다.

두 전직 정보요원 증언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날 국회에서 밝혀진 전두환 '사살명령'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다. 80년 5월 당시 사진기자였던 A씨는 21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계엄군이 발포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계엄군 사이에 있던 A씨는 “오전 12시 40분께 차모 대위가 통신병에게 ‘발포명령 어떻게 된 거야’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통신병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답하자 차 대위가 통신병에게 다그쳤고, 이후 발포명령이 떨어지자 시민군을 향해 집단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최한준기자

“극우세력 광주집회 무관심·무대응해야”

李시장 “시민들 분노 자극…지혜로운 대응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장은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당일 일부 극우성향의 단체들이 급남로 일대와 5·18민주묘지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무관심·무대응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무장 의원이 5·18기념일에 광주에서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도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은 국민과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가 기념식이 열리는 시각에, 자극적인 집회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광주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수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이들 단체의 집회는 이미 경찰에 신고·접수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광주시민들의 지혜로운 대응만이 최선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들의 간교한 목적에 광주가 절대 이용당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런 매일수록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께서 이성적 판단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숙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현범기자

이어 “이것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로 자리매김하고 온전한 5·18진상규명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가는 첩경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집회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응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광주 시민은 분명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거듭 지혜로운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진면목과 함께 광주에서는 더 이상 이념 갈등도, 지역감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이다”고 말했다. /최현범기자

“5·18왜곡 서적 도서관 등 버젓이 비치”

정무장 시의원 “현황 파악하고 진상 알리는 도서 배급해야”

광주시 산하기관 및 광주지역 대학 도서관 등에 5·18역사왜곡 서적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각 폐기와 진상규명 관련 서적 보급의 필요성이 뒤따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무장(민주·광산2)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5·18왜곡 주장이 실린 도서가 광주시 산하기관 및 대학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대출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산하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5·18 왜곡서적들이 무등종합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 소재 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 역사왜곡 대표적인 서적 중 극우세력 지만원이 저술한 '역사로서의 5·18', 극우성향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편찬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탈북자 이주성이 쓴 '보랏빛 호수'는 무등종합자료실을 비롯해 광주소재 대학도서관에 모두 대출가능으로 비치된 것으로



생한 5월 명령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며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5·18 왜곡 서적에 대해 광주시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교사모임에서 쓴 '5월 18일, 맑음'과 같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도서를 전국 도서관이나 학교에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배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은 5·18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비교하기 위해서 왜곡된 것이라 할지라도 비치된 것”이라며 “5·18역사왜곡서적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법률 대응 등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다이지

담양 11공수부대 앞 ‘전두환 비석’ 5·18자유공원 이전 결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진압 작전을 수행한 제11공수여단 정문 앞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광주 5·18자유공원으로 옮겨진 다.

광주시와 국방부, 5월 단체 관계자는 14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기념석을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 내 영창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6일 비석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시기와 방법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준공 기념석은 1983년 11공수여단이 전남 담양으로 부대를 이전하면서 세

워진 것으로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때문에 전두환이 계엄군의 전승기념비 격으로 건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5월 단체는 이 비석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상징물이라고 보고 이전을 추진해왔다. /김다이지

고마운 분께 선물하세요.

귀한 분들 일수록 귀한 걸 드려야죠
몸에 좋은 성분을 12배 농축한 비타민하우스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1588-8529